

## 한·중은행의 상호진출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반기신

강원대학교 경영회계학부 석사

변혜영

강원대학교 경영회계학부 교수

## The Effect of the Bilateral Expansion of Korean & Chinese Banks on Bank Performance

Qi-Xin Pan<sup>a</sup>, Hae-Young Byun<sup>b</sup>

<sup>a</sup>Department of Accounting, Kangwon National University, South Korea

<sup>b</sup>Department of Accounting, Kangwon National University, South Korea

*Received 28 February 2018, Revised 15 March 2018, Accepted 28 March 2018*

### Abstract

This paper studies the influence of the bilateral expansion of Korean and Chinese banks on performance. To conduct the empirical analysis, we select eleven Banks in South Korea and thirteen Banks in China over the 2000-2014 time frame. The main regression results are as followed. First, the sample bank's overseas subsidiaries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profitability and the profitability is somewhat deteriorates. Second, the sample bank's overseas branch and subsidiaries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bank's risk. That is, the loan loss provision ratio is slightly increased but impaired loan ratio is highly decreased. Third, the sample banks' overseas branch and subsidiaries als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bank efficiency. The ratio of customer deposits per employee worsens somewhat but the gross loan per employee are increased. In conclusion, as time passes, bank profitability or efficiency from mutual expansion of Korean banks and Chinese banks seem to be improving somewhat, and this phenomenon is more prominent at Korean banks than at Chinese banks.

**Keywords:** Banks, Overseas Expansion, Performance

**JEL Classifications:** M40, F32

## I. 서론

금융시장의 급속한 자유화 추세와 이에 수반한 정보기술의 발전이 금융 산업의 국제적 경쟁 시스템에 큰 변화를 주고 있다. 이러한 변화

는 2008년 미국의 금융 위기와 2010년 유럽의 재정위기로 초래된 일부 국제 금융기관의 파산과 합병을 통한 구조조정으로 확산되었으며, 이런 과정에서 각국 금융 산업은 급속히 세계화 되어 세계 각 지역과의 통합과 현지화가 가

<sup>a</sup> First Author, E-mail: panqixin77@126.com

<sup>b</sup> Corresponding Author, E-mail: hb70@kangwon.ac.kr

© 2018 Management & Economics Research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속화되고 있다. 금융자본의 국가 간 이동이 금융 산업의 기능적, 지역적 다각화를 급격히 견인하게 된 것이다( Cerutti and Peria, 2007; Focarelli and Pozzolo, 2005; Goetz, Laeven and Levine, 2013/ 2014).

국내 금융 산업도 이러한 추세에 대응하여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고 특히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국제적 경쟁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해외진출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sup>1)</sup> 이러한 상황인식은 관련 자료를 통해서도 뒷받침되고 있다. Park, Hae-Sik (2013)에 의하면 국내은행의 총자산은 2008년 금융 위기 이전에는 대부분 매년 10% 이상씩 증가해 왔지만 2009년에는 금융 위기의 영향으로 인해 현저히 감소하였다. 그 이후에도 수년간 한국 국내은행의 총자산증가율은 3% 정도에 불과하였고 특히 순이자마진의 지속적인 감소로 국내은행의 총자산순이익률과 자기자본이익률은 금융 위기 이전의 절반에도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선진국의 다국적 금융기관들이 거대 자본을 바탕으로 국제 간 인수 합병을 시도하거나 각국에 현지법인 및 지점들을 개설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국내 은행업의 국제자본 시장 점유율이 계속 저하되는 것이다. 더구나 국내고객의 해외금융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여 국내은행들의 해외진출 필요성도 시급한 상황이다 (Kim, Ji-Eun, 2016; Kim, Kyung-Jin, 2016).

그러한 의미에서 해외, 특히 중국에 진출한 한국은행들의 경영성과는 관련 연구자나 실무자들에게 각별히 관심이 가는 연구주제가

아닐 수 없다. 한국은 중국의 제일 수입국이자 투자공급원이며 중국도 이미 한국의 최대교역 상대국이자 최대 수출입국이다. 따라서 한국과 중국 은행산업의 상호진출 요구는 매우 당연하고 앞으로도 필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구나, 양국간 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 FTA)에 수반한 금융협상은 이미 중요 정책과제로 등장했고 중국과 한국의 FTA 타결과 위안화 직거래 등의 일련의 조치가 국내 은행 산업의 새로운 발전 기회로 기대되고 있다. 한국은행 산업이 지속적인 금융협상을 통해 중국의 추가적인 금융개방을 이끌어 내면 한국은행들의 중국 진출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Jee Man-Soo, 2014; Su, 2010).<sup>2)</sup>

그러나 이러한 한국과 중국 은행 간 상호진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관련 실증분석을 쉽게 찾아볼 수 없다. 한국은행의 중국진출은 중국은행들의 한국진출에 비해 다소 빠르게 진행됐지만 이러한 상호진출의 차이점이나 유사점이 양국은행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실증연구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이는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한국과 중국은행의 경영성과 비교에 관심을 두고는 있지만 대부분은 각국의 국내 영업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실증연구의 부족을 보완하고 또 다른 후속연구의 기초연구로 본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물론 모은행의 경영성과에 대비하자면 상대국 진출로 인한 영향은 매우 적을 것으로 여겨지나, 상대국 진출에 있어 양국 모두 20여년의 시간이 흐른 만큼 이러한

1) 지난 2016년 5월 27일 민간 금융기관과 금융감독원은 “은행의 글로벌 역량 제고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국내 은행의 해외진출 전략을 논의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최근 국내 은행의 저성장 기조와 저금리 기조가 새로운 수익 창출원을 필요로 하며 국내은행의 적극적인 해외진출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또한 국내 은행의 현지화 또는 국제화수준을 나타내는 초국적화지수(TNI)가, 세계 주요은행에 비해 매우 빈약하며 한국 국내은행의 성장세가 다소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는 데 공감하였다 (Kim, Ji-Eun, 2016).

2) 한국은행과 중국은행 간 위안화 직거래는 2014년 12월 1일 9시부터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앞으로는 한국과 중국 은행 사이의 원화-위안화 환율은 지정된 직거래 거래소를 통해서 먼저 달러로 환전할 필요 없이 원화-위안화 환율로 직접 처리될 수 있다. 이러한 직거래 방식으로 인해 화폐 교환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이 상당히 절감될 수 있다. 이런 정책의 실시는 한국과 중국 양국의 금융 및 경제 협력에 큰 도움이 되고 나아가 국내은행업의 전환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구주제에 대한 실증연구는 다소 한계가 있더라도 시도할 만한 하다고 판단하였다.<sup>3)</sup>

한편,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은행업의 해외 진출 혹은 국제화에 관한 이론적 가설과 실증연구 결과는 일관적이지 않다. 해외진출이 은행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이라고 보고하고 있는 연구들도 많다 (Berger, Hasan and Zhou, 2010; Brighi and Venturellib, 2014; Berger et al. 2016). 한국 은행과 중국 은행의 재무정보를 사용하여 상호진출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한 본 연구의 실증결과도 종속변수에 따라 혼재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먼저, 상호진출이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위험성과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은 종속변수에 따라 부정적이기도 하고 긍정적이기도 하다. 그러나 종합적으로 볼 때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점차 호전되고 있으며 특히 수익성에 관한 부정적인 영향은 해외진출 단계가 현지화 될수록 좀 더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한국은행과 중국은행의 상호진출이 대폭적인 매출이나 순이익의 증가로 이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아마도 현지화의 과정이 아직도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추론된다. 현지화 과정은 투자비용이 크고 빠른 성과를 내기 어렵지만 수익창출 기회도 많은 만큼 현지법인을 통한 사업 환경이 더욱 성숙해지면 향후에는 괄목할만한 경영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Byun Hyun-Soo and Park Jung-Hee, 2009).

서론에 이은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절에서는 한국은행과 중국은행의 상호진출 배경 및 경영성과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제3절에서는 상호진출에 따른 수익성, 위험성 및 효율성을 분석할 연구모형 설정과 변수에 대해 설명하고, 제4절에서는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며, 제5절에서는 연구의 결론을 요약한다.

## II. 해외진출에 관한 이론적 배경

### 1. 한국은행과 중국은행의 해외진출 배경

이론적으로 은행의 해외진출은 다국적기업의 해외진출 이론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국적 기업이 해외진출을 할 때 초기에는 대규모 수출로 시작해서 결국에는 직접 생산이나 판매를 진행하는 자회사 설립으로 완성되는 것처럼 은행의 해외진출도 처음에는 외국기업이나 국가에 대한 대출로 시작해서 좀 더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점 설치로 발전하고 결국은 자회사 설치나 해외은행 합병으로 완성된다는 것이다 (Gray and Gray, 1981; Goldberg and Saunders, 1981; Yannopoulos, 1983; Aliber, 1984). 그런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은행이 현재 중국에 진출하는 단계는 지점 설립 과정을 지나서 현지법인 설립 과정으로 진행하고 있고, 중국은행이 현재 한국에 진출하는 단계는 한국은행 보다 다소 늦어 대표사무소 설립을 거쳐 현재 지점 설립 과정에 이르고 있다.<sup>4)</sup>

3) Yonhapnews (2016)에 의하면 국내영업의 성장한 계를 극복하려는 국내 은행들의 해외진출 시도는 의욕적이지만 실제 해외에서 거둔 수익이나 이익은 매우 초라한 수준이고 전체비용은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라고 한다. 5대 국내은행 전체 순이익의 불과 10% 내외가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급속한 양적 증가에 비해 성과는 그리 크지 않다. 국내 은행업의 해외 법인이나 지점에 대한 위기 관리강화가 요구되는 한편 국내은행들의 해외진출 전략과 성과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 이유이다.

4) 신한은행이나 우리은행 같은 국내 시중은행의 경우, 중국 진출 초기에는 대표사무소나 지점의 형태였지만, 이후에는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소비자 금융업무를 도모하고 있다. 2015년에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 외자은행관리조례에 따르면 외국계 은행은 진출 형태에 따라 취급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가 달라진다. 예를 들면, 외국계 은행의 지점은 일정금액 이상의 예금만을 취급하지만, 현지법인은 제한 없이 소액예금과 은행카드 업무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즉, 지점은 제약이 따르

Byun Hyun-Soo and Park Jung-Hee (2009)는 국내은행의 해외진출 결정요인을 은행특성 요인과 입지특성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는데,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은행의 규모나 효율성 같은 은행특성 요인 보다는 경제적 통합 정도나 수익창출 기회 같은 입지특성요인이 해외진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했다. 특히 진출대상국이 우리나라와 경제적 통합 정도가 크고 규제가 약할수록 해외 지점의 형태로 진출하고 금융시장 규모가 크고 수익창출 기회가 클수록 현지법인 형태의 진출이 많다고 주장했다. 만일, 한국은행의 중국진출 결정요인을 위의 연구에 기대어 추론한다면, 막대한 노동력을 가진 최인접국이라는 중요한 입지 특성 (location-specific factors)으로 인한 경제적 통합 정도 (economic integration)와 최대 교역상대국으로서의 수익창출 기회 (profit opportunities)가 잠재적으로 높았기 때문일 것이다.<sup>5)</sup>

지만 현지법인은 소매금융을 취급할 수 있어 현지화에 성공하려면 중국 현지에 법인을 설립해야 한다. 중국 은행들의 한국진출 방식도 국내은행과 크게 다르지 않아 한국에 진출한 초기에는 비영리 대표처의 형식을 띠었다가 지금은 지점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중국은행들도 진출 초기에는 거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지점의 형태를 유지하며 현지 주재 기관이나 유학생을 포함한 중국 교민들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다가 적절한 시기에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특히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규모를 자랑하는 중국은행들은 최근 거대한 자본력을 기반으로 지분참여를 하거나 은행을 합병하는 전략도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다(Yang Jong-Sik, 2011; Pan, 2015; Zhu and Li, 2012).

5) 은행의 해외진출 동인에 대한 유사한 연구는 많다. 은행은 모은행이 존재하는 자국과 지점이나 자회사가 존재하는 진출대상국과의 경제적 통합 여부를 고려할 때 상호 무역수준이나 해외직접투자 수준 같은 경제적 변수는 물론이고 언어나 문화 유사성 같은 비경제적 측면도 포함한다 (Grosse and Goldberg, 1991; Buch 2003, Buch and DeLong, 2004). 진출대상국 정부가 자국 금융업 보호를 위해 은행업의 진출을 막거나 통제하는 등 각종 규제를 하는 경우에는 진입이 어려워지기도 하는데, 특히 Boot (1999)는 정부소유 은행의 시장점유율이 높거나 은행업의 집중도가 높은 국가의 외국은행 진입율이 낮다고 주장한다. 수익창출의 기회 역시

Park Dong-Chang (2011)은 국내 은행의 아시아 지역 진출이 점포수 기준으로 보면 전체기준의 55.1%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무역활동이 아시아 지역에 상당히 집중되어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Lee Byoung-Tae (2013)도 우리나라 외환은행의 사례를 들어 입지적 특성에 기반한 해외진출 이론을 주장하고 있다. 외환은행의 해외진출이 기업우위가 있는 동남아시아 지역이나 입지적 우위가 있는 중국지역에 편중된 것이 전형적인 사례이며 여전히 재외동포나 한국기업들의 금융수요를 흡수하는 수동적 입장이어서 현지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Lee Nae-Joon, Choi Jung-Seok and Wang Bo (2015) 역시 국내은행의 지리적 근접성과 교역 증가를 중국진출의 주된 요인이라 주장하며 향후 중국의 금융산업 개방정책으로 기업 금융에 이어 소매금융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국내은행들의 현지화 전략이 가속될 것으로 예측했다. Liu Si-Tong (2017)은 1992년 한국과 중국의 정식 수교 이후 한국은행의 중국진출 현황을 단계적으로 나누어 분석하였고 중국의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가입을 계기로 중국 내 한국은행의 규모와 업무 범위 및 상품 종류가 확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 2. 해외진출이 은행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행과 중국은행의 수익성과 위험성, 그리고 효율성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많지만 양국 은행의 해외진출 특히 상대국 진출과 경영성과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선행연구는 찾아볼

매우 중요한 입지적 특성으로, 1인당 소득이나 국민 소득이 높고 국가 위험 정도가 낮은 안정된 국가에는 외국은행들의 진출 요구가 높다 (Goldberg and Johnson, 1990; Yamori, 1998; Brealey and Kaplanis, 1996; Focarelli and Pozzolo, 2005). 이러한 입지 특성은 은행의 규모나 효율성 같은 은행특성요인 (bank-specific characteristics)과 더불어 은행업 해외진출의 결정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은행의 해외진출과 경영성과에 관련한 여타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해외진출, 혹은 지역적 다각화가 진출은행의 수익성을 악화시킨다는 실증연구들이 존재한다. Brighi and Venturellib (2014)는 미국의 금융위기와 유럽의 재정위기에 주목하여 은행의 기능적, 지리적 다각화와 은행 수익성과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2006년부터 2012년 까지 이탈리아 은행 표본 491개를 사용하여 실증한 연구결과를 보면 기능적 다각화와 지리적 다각화 모두 수익성을 악화시킨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은행의 규모나 사업전략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다. Berger, Hasan and Zhou (2010)는 1996년에서 2006년 동안 다각화의 관점에서 중국은행들의 경영성과를 조사하였다. 이 연구는 다각화를 대출, 예금, 자산 그리고 지역적 다각화라는 4가지 범주로 나누어 분석하였는데, 연구결과에 의하면 4가지 범주 모두 예외 없이 이익의 감소와 비용의 증가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각화의 성과에 대한 다양한 강건성 분석에도 달라지지 않았다. 나아가 이러한 다각화의 부정적 영향은 외국인 지분이 있는 은행인 경우나 기업집단에 속해있는 경우에는 다소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나 외국인 지분이나 기업집단 관련 여부가 중요한 완화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rger et al. (2016)은 1989년부터 2010년에 걸친 대량의 미국은행 표본을 사용하여 은행의 국제화와 위험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Z-core를 사용한 실증분석에 의하면 미국의 다국적 은행들은 국내영업에 치중하는 은행에 비하여 총체적으로 더 큰 위험에 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Gulamhussen, Pinheiro and Pozzolo (2014) 역시 다국적 은행의 국제화와 위험 관련성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전통적으로 다국적 은행 (multinational bank)은 포트폴리오 다각화로 인한 위험의 분산을 추구하지만 그러한 예측을 상쇄시키는 인센티브로 인해

오히려 과도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한다. 이론적으로는 위험 분산과 위험 집중의 가능성이 모두 존재하지만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는 전적으로 실증적인 문제라는 주장이다. Gulamhussen, Pinheiro and Pozzolo (2014)는 2001년부터 2007년에 걸쳐 전 세계 56개국 384개의 상장은행들을 대상으로 다국적 은행의 국제화와 위험 관련성에 대하여 실증하였고, 실증 결과에 의하면 다국적 은행의 국제화는 채무불이행 빈도나 Z-score 로 측정된 은행의 위험을 모두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Jiao Yao-Hui, Quan Ri-Shu and Sul Won-Sik (2015)은 한국은행과 중국 은행의 해외현지법인의 수익성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그 차이를 비교하였다. 2000년부터 2012년 까지 해외 현지법인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계 현지법인은 자기자본비율, 대손충당금비율 및 순대출비율이 낮을수록, 그리고 순이자마진은 높을수록 수익성이 높았다. 또한, 경제발전 정도가 낮은 국가에서 수익성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중국계 현지법인은 자기자본비율과 순이자마진이 높을수록, 그리고 규모가 클수록 수익성이 높았다. 저자는 한국계 해외 현지법인의 경우 대출의 사후관리 같은 내부운영의 적절성이 수익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중국계 현지법인의 경우 아직 규모가 수익성 향상의 결정요인으로 판단했다. 이런 한국은행과 중국은행의 수익성 결정요인의 차이는 양국 은행 해외 현지법인의 발전역사가 다르고 국제화 정도나 수익구조 측면이 다르기 때문으로 해석하였다.

### III. 연구방법론

#### 1.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 1) 은행의 상호진출에 관한 연구가설

본 연구는 한국은행과 중국 은행의 상호진출

과 은행의 수익성, 위험성 및 효율성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은행의 상호 진출을 지점으로 개설하는 방법과 현지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으로 나누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진출 형태에 대한 구분은 현지법인이나 현지지점은 모은행의 관련성과 책임성에 차이를 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모은행의 경영성과에도 큰 차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은행규모, 대손충당금, 자기자본비율, 수익창출능력, 유동성비율, 지불능력비율 등 여러 경영성과 지표들이 달라질 수 있다( Focarelli and Pozzolo, 2005; Cerutti, Dell’Ariccia and Peria, 2007 ). 본 연구는 한국은행과 중국은행의 상호진출 형태가 은행의 수익성, 위험성 및 효율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지 살펴보기 위해 제 2절에서 언급된 선행연구들을 기반으로 실증연구를 위한 연구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 H1 한국은행과 중국은행의 상호진출은 수익성과 관련이 있다.  
 H2 한국은행과 중국은행의 상호진출은 위험성과 관련이 있다.  
 H3 한국은행과 중국은행의 상호진출은 효율성과 관련이 있다.

## 2) 은행의 상호진출에 관한 연구모형

은행의 상호진출과 경영성과와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계하였다. 분석에 사용한 변수들은 한국은행과 중국은행의 수익성, 위험성, 그리고 효율성 관련 선행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변수들을 사용하였다. 특히, 연구모형에 관해서는 Byun, Hae-Young (2017) 논문을 다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수익성은 Hong, Chung-Hyo and Koh Bo-Hyeon (2010), Lee Myung-Chul and Ju-Cheul Park (2011)연구를, 위험성은 Park, Jung-Soo, Suh Jeong-Ho and Park Bo-Kyung (2013)을, 그리고 효율성은 Kim, Hee-Chang (2012)과 Kim, Chang-Beom (2012)의 연구를

추가로 참조하였다. 특히, 중국은행과 관련해서는 Su, Shuai(2010), Zhu Hui Qin and Li Ming-Ji (2012)와 Jeon, Yeon-Joo, Ri-Shu Quan and Won-Sik Sul (2015) 연구를 참조하였다.

$$\begin{aligned}
 PERFORMANCE = & \alpha + \beta_1 OE_2 + \beta_2 OE_3 \\
 & + \beta_3 LNT\_CDE + \beta_4 C\_INCOME \\
 & + \beta_5 LOAN\_TA + \beta_6 NIE\_TAS \\
 & + \beta_7 NII\_TAS + \beta_8 EQASS \\
 & + \beta_9 LOA\_CD + \beta_{10} PRO\_EQ \\
 & + \beta_{11} LNGDP + \beta_{12} INFLA \\
 & + \beta_{13} TRAD \\
 & + \beta_{14} COUNTRY + \epsilon \quad (1)
 \end{aligned}$$

## 2. 변수 선정

### 1) 종속변수 : 경영성과

한국은행과 중국은행의 경영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모두 6개의 종속변수를 사용하였다. 수익성 변수로 순이자마진율(NIM)과 총자산이익률(ROA)을 사용하였고, 위험성 변수로 대손충당금비율(LLP)과 무수익여신비율(NPL)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효율성 변수로 종업원 1인당 고객예수금비율(LNCDE)과 종업원 1인당 대출금비율(LNGLE)을 사용하였다. 종업원 1인당 고객예수금(LNCDE)비율은 고객예수금을 종업원수로 나누어 측정하였고, 종업원 1인당 대출금비율(LNGLE)비율은 대출금을 종업원 수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각 변수에 대한 설명은 〈Appendices〉를 참조한다.

### 2) 독립변수

한국은행과 중국은행의 상호진출(OE\_1)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변수로는 지점 진출(OE\_2) 변수와 현지법인 진출(OE\_3) 변수를 동시에 사용하였다. 먼저, OE\_1은 표본은행의 해외진출(Overseas Expansion) 여부로 상대국에 진출했으면 1, 상대국에 진출하지 않았으면 0으로 설정하여 단변량 분석

에서 검증하였다. 다변량 분석에서 사용한 것은 OE\_2와 OE\_3으로 OE\_2는 상대국 진출 형태를 특정하여 지점이면 1, 아니면 0으로 설정하였다. OE\_3은 상대국 진출 형태가 현지법인이면 1, 아니면 0으로 설정하였다.

한국과 중국의 상호 진출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많은 통제변수를 필요로 한다. 먼저, 상호진출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다른 해외지역 진출 여부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국은행과 중국은행 모두 초국적화지수 같은 적절한 통제변수를 구하기 어려워 부득이하게 양 국가의 금융발전 정도를 나타내는 국가총생산 대비 주식시장 시가총액(TRAD)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이는 은행들이 자국 고객들의 다양한 금융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해외진출을 확대하고 은행업의 해외진출이 해당국의 금융발전 정도와 양(+)의 관계를 갖는다는 선행연구에 근거하였다 (Berger et al., 2000; Byun Hyun-Soo and Park Jung-Hee, 2009). 국내총생산 (LNGDP), 국가별 연간 인플레이션 (INFLA)과 국가별 구조적 차이를 감안한 국가 (COUNTRY) 더미 변수도 추가하여 미처 통제하지 못한 효과를 추가로 통제하고자 하였다.

그 외의 통제변수들은 은행의 경영성과 지표에 사용되는 다양한 변수들을 앞에서 언급한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통제하였다 (Byun, Hae-Young, 2017). 먼저, 로그변환한 총고객

예수금(LNT\_CDE)은 은행의 규모를 나타내고, 원가를 소득으로 나눈 원가비율(C\_INCOM)은 은행운영상 효율성을 측정한다. 총대출을 총자산으로 나눈 총대출비율(LOAN\_TA)은 은행의 유동성을 측정하는 변수이고, 비이자비용을 총자산으로 나눈 비이자비용비율(NIE\_TAS)은 은행의 경영효율성을, 비이자 이익을 총자산으로 나눈 비이자수익비율(NII\_TAS)은 은행 다각화를 나타내는 변수이다. 은행의 자기자본을 총자산으로 나눈 자기자본 비율(EQASS)은 은행 자본의 건전성을, 총대출을 고객예수금으로 나눈 금융중개비율 (LOA\_CD)은 은행의 유동성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로그변환한 자기자본이익비율 (PRO\_EQ)은 은행의 운영성과를 나타낸다. 본 연구는 가능한 한 많은 통제변수를 사용하여 관련 변수들이 제외되어 발생하는 correlated omitted variables problem을 피하고자 하였다. 또한, 다중공선성 검증을 통해 상관관계가 매우 높은 변수들은 미리 제거하였다.

### 3. 표본 선정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양국의 주요 은행들을 표본으로 선정했다. 양국 은행들의 재무정보 및 비재무정보를 구하기 위하여 국내 데이터베이스인 KISVALUE와 뷰로반다익 (Bureau van Dijk)에서 제공하는 은행업 데이

**Table 1.** Final Sample Banks by Country

Bank Category		Sample Banks
Korea	Nation-Wide Banks	Shinhan Bank, Woori Bank, Hana Bank, Korea Exchange Bank, KB Kookmin Bank
	Local Banks	Daegu Bank, Busan Bank, Kwangju Bank, Jeju Bank, Jeonbuk Bank, Kyongnam Bank
China	State-Owned Banks	Industrial & Commercial Bank of China, China Construction Bank, Agricultural Bank of China, Bank of Communications, Bank of China
	Joint-Stock Banks	China Everbright Bank, HUA XIA Bank, Ping An Bank, Shanghai Pudong Development Bank, China Minsheng Banking Corporation, China Citic Bank, China Merchants Bank, Industrial Bank

**Table 2.** The Number of Banks by Country and Year

	Korean Bank			Chinese Bank		합계
	OE_1=0	OE_1=1		OE_1=0	OE_1=1 OE_2=1	
		OE_2=1	OE_3=1			
2000	5	4	0	3	2	14
2001	4	5	0	4	2	15
2002	4	5	0	6	2	17
2003	4	5	0	6	2	17
2004	4	5	0	5	3	17
2005	5	5	0	4	4	18
2006	5	5	0	4	4	18
2007	5	5	0	4	4	18
2008	6	2	3	7	4	22
2009	6	2	3	8	4	23
2010	6	1	4	8	4	23
2011	6	1	4	8	4	23
2012	6	0	5	8	5	24
2013	5	1	5	8	5	24
2014	5	1	5	8	5	24
Total		145			152	297

터베이스인 BANKSCOPE에서 관련 데이터를 추출하였다. 데이터가 없는 경우 표본에서 제외되어 최종 표본은 한국에서 일반시중은행 5개와 지방은행 6개로 모두 11개 은행을, 중국에서 국유 상업은행 5개와 주식제 상업은행 8개로 모두 13개 은행을 표본은행으로 추출하였다(〈Table. 1〉 표본은행 참고). 전체 분석기간은 2000년부터 2014년까지의 15개 연도로 중국은행 표본 145개, 한국은행 표본 152개 총 297개로 설정하였다(〈Table 2〉 연도별 국가별 표본 수 참고). 변수 측정을 위해 한국과 중국화폐액 모두 미국달러화로 변환하였다.

#### IV. 실증분석 결과

한국과 중국 은행의 상호진출이 수익성, 위

험성 및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임의 효과 모형 (Random Effect Model)을 적용하여 패널분석으로 실시하였다.<sup>6)</sup> 6개의 종속변수와 선행연구에서 주로 사용된 독립변수를 통제변수로 추가하였고 화폐금액으로 설정된 대부분의 통제변수들은 모두 자연 로그로 변환하여 분석하였다.

##### 1. 표본은행의 기술통계

〈Table 3〉은 표본기간 동안 본 연구의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의 기술통계량을 보고한 것이

6) 통계적 검증 (the Breusch and Pagan Lagrange multiplier test) 결과 임의효과 모형 일반화최소자승법 (Random Effect Generalized Least Squares Regression)이 합동최소자승법 (Pooled Ordinary Least Square regression) 보다 우월한 통계치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더미변수를 포함하는 모형이므로 고정효과 모형 (Fixed Effect)은 고려하지 않았다.

다. 표본 중 43.8%가 상대국에 진출하였고 그 중 34%는 지점 형태로 나머지 9.8%는 현지법인 형태로 진출하였다. 수익성 대응변수인 순이자마진율(NIM)과 총자산이익률(ROA)은 평균값이 각각 2.781 (표준편차, 0.545)과 1.017 (표준편차, 0.728)이고 위험성 대응변수인 대손충당금비율(LLP)과 무수익여신비율(NPL)은 평균값이 각각 24.613 (표준편차, 34.259)과 3.273 (표준편차, 5.835)이다. 효율성 대응변수인 종업원 1인당 고객예수금(LNCDE)과 종업원 1인당 대출금(LNGLE)은 평균값이 각각 4.809 (표준편차, 3.613)과 4.758 (표준편차, 3.201)이다. 중국은행과 한국은행의 규모 차이로 인하여 분석에 포함된 변수들의 최소값과

최대값 차이가 매우 크다. 이런 차이에 따라 각국 은행별 사업전략이나 상대국 진출 전략도 구조적 차이를 보여줄 것으로 추론되었다. 이런 이유로 한국과 중국은행 별로 추가적 검증을 실행하였다.

## 2. 국가별 단변량 분석

〈Table 4〉는 한국은행과 중국은행 표본의 주요 변수간 평균차이를 검증한 것이다. T-검정 결과를 살펴보면, 한국은행의 중국진출이 중국은행의 한국진출(OE\_1) 보다 많고 특히 현지법인의 형태(OE\_3)인 경우가 많아 현지화를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은행의 한국진출인 경우 표본기간

**Table 3.** Statistics Descriptive

Variables	Mean	SD	Min	1Q	Median	3Q
OE_1	0.438	0.498	0	0	0	1
OE_2	0.340	0.475	0	0	0	0
OE_3	0.098	0.297	0	0	0	0
NIM	2.781	0.545	1.050	2.420	2.805	3.163
ROA	1.017	0.728	-4.290	0.710	1.055	1.500
LLP	24.613	34.259	1.070	10.955	15.655	24.275
NPL	3.273	5.835	0.440	0.945	1.460	2.305
LNCDE	4.809	3.613	-4.257	1.722	2.319	8.537
LNGLE	4.758	3.201	0.329	1.809	2.375	8.186
LNT_CDE	6.337	2.234	1.512	4.416	5.226	8.525
C_INCOM	45.872	12.882	23.780	37.125	44.710	51.128
LOAN_TA	0.610	0.094	0.431	0.532	0.616	0.690
NIE_TAS	2.021	1.212	0.910	1.440	1.735	2.200
NII_TAS	0.647	0.830	-0.050	0.320	0.520	0.770
EQASS	5.549	2.479	-13.710	4.590	5.880	6.800
LOA_CD	4.171	22.037	0.555	0.719	0.827	1.047
PRO_EQ	0.176	0.172	-1.269	0.119	0.201	0.262
LNGDP	12.290	0.403	11.726	12.001	12.125	12.704
INFLA	2.945	2.391	-0.140	1.032	2.397	3.650
TRAD	101.144	46.865	17.296	68.746	95.396	136.725
COUNTRY	0.512	0.501	0	0	1	1

Note: Variable definition refers to Appendices.

Table 4. Univariate Tests

Variables	China (N=145)	Korea (N=152)	Difference	t-Value	p-value
OE_1	0.372	0.500	-0.128	-2.227**	0.027
OE_2	0.372	0.309	0.063	1.148	0.251
OE_3	0	0.191	-0.191	-5.827***	0.000
NIM	2.692	2.870	-0.178	-2.811***	0.005
ROA	1.297	0.736	0.561	7.096***	0.000
LLP	14.998	34.365	-19.367	-4.958***	0.000
NPL	4.718	1.601	3.117	4.457***	0.000
LNCDE	8.414	1.471	6.943	59.166***	0.000
LNGLE	8.055	1.746	6.309	100.874***	0.000
LNT_CDE	8.499	4.246	4.252	53.731***	0.000
C_INCOM	39.575	52.168	-12.592	-9.529***	0.000
LOAN_TA	0.539	0.678	-0.138	-18.689***	0.000
NIE_TAS	1.458	2.584	-1.125	-8.908***	0.000
NII_TAS	0.469	0.825	-0.356	-3.736***	0.000
EQASS	4.829	6.235	-1.405	-5.086***	0.000
LOA_CD	0.700	7.527	-6.826	-2.687***	0.008
PRO_EQ	0.247	0.105	0.141	7.695***	0.000
LNGDP	12.625	12.569	.056	1.547	0.129
INFLA	3.891	3.907	-.016	-0.048	0.961
TRAD	11.990	11.971	.019	1.354	0.176

Note: 1.\*\*\*, \*\*, and \* indicate significance at 1%, 5%, and 10%.

2. Variable definition refers to Appendices.

내에 현지법인 형태는 존재하지 않았다. 종속 변수들과 대부분의 통제변수들은 한국은행과 중국은행 별로 모두 1%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다. 다만, 한국과 중국의 국내 총생산, 인플레이션, 그리고 자본시장 발달 정도를 보여주는 LNGDP, INFLA, TRAD 변수 등은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다.

### 3. 변수간 상관관계 분석

〈Table 5〉는 다변량 회귀분석 이전에 변수들 간의 일대일 상관관계를 제시한다. 순이자마진율(NIM)의 경우는 상호지점진출 변수 OE\_2 및 현지법인 변수 OE\_3와 모두 유의한 음(-)의 관계를 보여주며, 총자산이익률(ROA)

의 경우는 OE\_3의 경우에 유의한 음(-)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일대일 상관관계를 보면, 한국은행과 중국은행 모두 상호진출을 통한 수익성 제고를 입증하지 못하였다. 대손충당금비율(LLP)과 무수익여신비율(NPL)의 경우는 공통적으로 OE\_2와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이지만, OE\_3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즉, 일대일 상관관계에서 보면 지점 형태의 상호진출이 은행의 위험성을 다소 증가하고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효율성 변수인 종업원 1인당 고객예수금(LNCDE)과 종업원 1인당 대출금(LNGLE)의 경우는 공통적으로 OE\_3과 유의한 음(-)의 관계를 보여준다. 이는 일대일 상관관계에서 현지법인과 효율성의 관계는 다소 악화되고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즉, 한국과 중국은행의

**Table 5.** Pearson Correlation

	NIM	ROA	LLP	NPL	LNCDE	LNGLE	OE_2	OE_3
ROA	0.408 0.000	1						
LLP	-0.179 0.002	-0.782 0.000	1					
NPL	-0.416 0.000	-0.357 0.000	0.224 0.000	1				
LNCDE	-0.042 0.484	0.430 0.000	-0.255 0.000	-0.111 0.076	1			
LNGLE	-0.047 0.429	0.423 0.000	-0.253 0.000	-0.115 0.066	0.996 0.000	1		
OE_2	-0.016 0.007	0.085 0.147	0.202 0.001	0.121 0.051	0.060 0.312	0.043 0.464	1	
OE_3	-0.254 0.000	-0.113 0.054	-0.022 0.710	-0.095 0.125	-0.249 0.000	-0.265 0.000	-0.236 0.000	1
LNT_CDE	-0.175 0.002	0.437 0.000	-0.276 0.000	0.250 0.000	0.788 0.000	0.765 0.000	0.205 0.000	-0.196 0.000
TRAD	0.258 0.000	0.193 0.000	-0.110 0.062	-0.427 0.000	-0.201 0.000	-0.185 0.001	-0.090 0.122	0.202 0.000
COUNTRY	0.163 0.005	-0.385 0.000	0.283 0.000	-0.266 0.000	-0.961 0.000	-0.986 0.000	-0.067 0.252	0.321 0.000
	C_INCOM	LOAN_TA	NII_TAS	NIE_TAS	EQASS	LOA_CD	PRO_EQ	LNGDP
LOAN_TA	0.505 0.000	1						
NII_TAS	0.224 0.000	-0.013 0.819	1					
NIE_TAS	0.544 0.000	0.231 0.001	0.759 0.000	1				
EQASS	-0.002 0.972	0.130 0.024	0.003 0.959	-0.087 0.137	1			
LOA_CD	0.117 0.046	-0.081 0.162	0.043 0.465	0.169 0.004	-0.078 0.180	1		
PRO_EQ	-0.557 0.000	-0.356 0.000	-0.245 0.000	-0.647 0.000	0.112 0.056	-0.188 0.001	1	
LNGDP	-0.605 0.000	-0.662 0.000	-0.187 0.001	-0.512 0.000	0.035 0.547	-0.194 0.000	0.434 0.000	1
INFLA	-0.318 0.000	-0.323 0.000	-0.070 0.234	-0.135 0.021	-0.174 0.002	-0.017 0.766	0.192 0.001	0.287 0.000
TRAD	-0.068 0.000	0.265 0.000	0.012 0.832	-0.018 0.755	0.361 0.000	-0.071 0.218	0.001 0.986	-0.059 0.306
COUNTRY	0.489 0.000	0.736 0.000	0.464 0.000	0.215 0.000	0.284 0.000	0.155 0.007	-0.413 0.000	-0.700 0.000

Note: Variable definition refers to Appendices.

상호진출이 수익성과 위험성 그리고 효율성에 부정적이지만 아직 통제변수의 효과가 존재하지 않음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 4. 다중회귀분석 결과

## 1) 주요 회귀분석 결과

〈Table 6〉은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한 임의효과 모형의 패널 분석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먼저, 〈Table 6〉

의 모형 (1), (2)는 OE\_2와 OE\_3이 은행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모형 (3), (4)는 위험성에 미치는 영향을 그리고 모형 (5), (6)은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한다. 먼저 순이자마진율(NIM)을 종속변수로 사용한 모형 (1)의 경우, OE\_2는 유의하지 않으나 OE\_3의 계수

Table 6. Main Regression Results on Profitability, Risk, and Efficiency

	Profitability		Risk		Efficiency	
	(1) NIM Coef. (Z-value)	(2) ROA Coef. (Z-value)	(3) LLP Coef. (Z-value)	(4) NPL Coef. (Z-value)	(5) LNCDE Coef. (Z-value)	(6) LNLGE Coef. (Z-value)
con.	-10.629 (-6.43)***	-6.395 (-5.10)***	128.143 (2.09)**	171.973 (9.19)***	-4.923 (-3.56)***	-6.599 (-6.56)***
OE_2	0.022 (0.26)	0.032 (0.49)	2.623 (0.93)	-1.910 (-2.32)**	-0.142 (-1.75)*	0.104 (1.85)*
OE_3	-0.265 (-2.15)**	-0.191 (-2.05)**	8.822 (2.13)**	-3.809 (-3.27)***	-0.002 (-0.02)	0.206 (2.67)***
LNT_CDE	-0.101 (-1.09)	0.074 (1.07)	-2.032 (-0.72)	4.146 (5.01)***	0.304 (3.42)***	-0.115 (-1.80)*
C_INCOM	-0.014 (-4.55)***	-0.010 (-4.38)***	-0.211 (-1.70)*	0.151 (3.78)***	-0.008 (-3.01)***	-0.008 (-4.47)***
LOAN_TA	0.363 (0.81)	0.552 (1.62)	-45.472 (-2.81)***	-5.191 (-1.11)	1.469 (3.70)***	2.222 (8.44)***
NIE_TAS	0.508 (10.31)***	-0.265 (-7.10)***	29.485 (16.53)***	-1.912 (-2.98)***	0.035 (0.80)	-0.071 (-2.45)**
NII_TAS	-0.520 (-10.47)***	0.230 (6.12)***	4.489 (1.55)	1.795 (1.66)*	-0.032 (-0.73)	0.054 (1.88)*
EQASS	-0.009 (-0.83)	-0.011 (-1.31)	0.223 (0.55)	-0.482 (-4.20)***	0.024 (2.51)**	0.024 (3.83)***
LOA_CD	-0.001 (-0.52)	-0.0004 (-0.34)	-0.135 (-2.45)**	0.049 (3.05)***	-0.030 (-18.94)***	-0.003 (-2.50)**
PRO_EQ	1.947 (9.08)***	2.119 (13.03)***	-72.299 (-9.23)***	-14.675 (-5.26)***	0.145 (0.74)	-0.299 (-2.32)**
LNGDP	1.067 (7.68)***	0.536 (5.09)***	-7.105 (-1.40)	-15.479 (-10.14)***	0.876 (6.69)***	1.165 (12.94)***
INFLA	0.023 (2.54)**	0.015 (2.17)**	-0.567 (-1.63)	-0.296 (-2.95)***	0.003 (0.44)	0.002 (0.31)
TRAD	-0.0001 (-0.11)	0.001 (3.26)***	-0.001 (-0.06)	-0.001 (-0.10)	-0.0003 (-0.58)	0.0003 (0.99)
COUNTRY	0.591 (1.55)	0.713 (2.46)**	-27.826 (-2.30)**	-3.645 (-1.03)	-5.006 (-13.73)***	-6.274 (-24.07)***
N	297	297	297	297	297	297
LR chi <sup>2</sup>	363.03	1811.45	1819.19	489.30	9821.44	9205.32
P-value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Overall-R <sup>2</sup>	0.5619	0.8623	0.8714	0.6718	0.9880	0.9881

Note:1. \*\*\*, \*\*, and \* indicate significance at 1%, 5%, and 10%, respectively.

2. Variable definition refers to Appendices.

는  $-0.265$  ( $t\text{-value}=-2.15^{**}$ )로 NIM를 감소시킨다. 또한 총자산이익률(ROA)을 종속변수로 사용한 모형 (2)의 경우도 OE\_2는 유의하지 않으나 OE\_3의 회귀계수는  $-0.191$  ( $t\text{-value}=-2.05^{**}$ )로 역시 ROA를 감소시킨다. 즉, 현지법인 형태의 상대국 진출이 통계적으로 모은행의 수익성에 부정적임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상호진출이 은행의 수익성을 제고한다는 증거는 찾지 못하였다.

다음으로 대손충당금 비율(LLP)을 종속변수로 사용한 모형 (3)의 경우, OE\_2는 유의미하지 않으나 OE\_3의 계수는  $8.822$  ( $t\text{-value}=2.13^{**}$ )으로 LLP를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무수익여신 비율(NPL)을 종속변수로 사용한 모형 (4)의 경우는 OE\_2 계수가  $-1.910$  ( $t\text{-value}=-2.32^{**}$ )이고 OE\_3 계수는  $-3.809$  ( $t\text{-value}=-3.72^{***}$ )로 두 변수 모두 매우 유의한 음(-)의 영향을 보여준다. 이는 상호진출이 무수익여신 비율을 상당히 감소시키고 있다는 긍정적인 결과로 볼 수 있다. 즉, 위험성에 관한 실증결과를 살펴보면 현지법인 진출이 대출금 증가에 따른 대손충당금 비율을 증가시키는 경향은 있으나 위험대출은 지점의 경우나 현지법인의 경우 모두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은행과 중국은행의 상호진출 정도가 진화할수록 대출규모가 늘고 대손충당금 비율도 증가하지만 위험대출이라는 부정적 효과는 많이 완화되고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은행의 종업원 1인당 고객예수금 비율(LNCDE)을 종속변수로 사용한 모형 (5)에서 OE\_2의 회귀계수는  $-0.142$  ( $t\text{-value}=-1.75^*$ )로 나타나 은행의 상호진출이 LNCDE를 다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종업원 1인당 대출금 비율(LNGLE)을 종속변수로 사용한 모형 (6)에서는 OE\_2의 회귀계수가  $0.104$  ( $t\text{-value}=1.85^*$ )이고 OE\_3의 회귀계수는  $0.206$  ( $t\text{-value}=2.67^{***}$ )로 상호진출이 LNCDE를 크게 증가하고 있다. 즉, 상호진출은 고객예수금 관련 효율성은 제고하지 못했으나 대출금 관련

효율성은 지점의 형태든 현지법인의 형태든 많이 좋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증결과를 보면, 양국은행의 상호진출이 고객예수금 거래보다는 대출금 관련 업무를 증가시키고 있고, 결과적으로 대출금관련 종업원의 효율성을 크게 제고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은행과 중국은행의 수익성, 위험성, 그리고 효율성을 통제하는 많은 통제변수의 실증결과도 매우 유의하다. 특히, 원가비율(C\_INCOM), 비이자비용비율(NIE\_TAS), 그리고 자기자본이익율(PRO\_EQ) 등이 대부분의 모형에서 강한 유의성을 보여주고 있다. 나아가, 국내총생산을 나타내는 변수 LNGDP와 국가 더미변수 COUNTRY 역시 대부분의 모형에서 유의미하였다. 다만 양 국가의 금융발전 정도를 통제하고자 했던 국내총생산 대비 주식시장시가총액 변수 TRAD는 오직 모형 (2)에서 유의하였고, 연간 인플레이션을 측정하는 INFLA 변수는 수익성 모형 (1), (2)와 위험성 모형 (4)에서만 유의하였다.

## 2) 추가 분석 결과 (국가별 분석)

앞서 실증결과들은 중국은행과 한국은행의 상호 진출이 표본 은행들의 수익성, 위험성, 그리고 효율성과 음(-)으로든 양(+)-으로든 관련되어 있다는 기본 가설을 대부분 지지한다. 이러한 결과의 강건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은행별 상호 진출연도 변수(OE\_N)를 연구변수로 추가한 국가별 분석을 진행하였다. 즉, 상호진출의 역사가 오래될수록 수익성, 위험성, 그리고 효율성이 좋아지고 있는 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은행의 경영성과가 진출연도에 따라 점차 변화하는 지를 가늠할 수 있다. <Table 7>은 OE\_N이 은행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Table 8>은 OE\_N이 은행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한다. 아울러, 국가별로 대손충당금 비율(LLP)과 무수익여신 비율(NPL) 모형을 사용하여 OE\_N 변수가 위험성에 미치는 영향도 추가로 분석하였다. 실증결과는 아쉽게도 한

**Table 7.** Additional Regression Results on Profitability by Country

	Korean Banks				Chinese Banks			
	(1) NIM		(2) ROA		(3) NIM		(4) ROA	
	Coef.	Z-value	Coef.	Z-value	Coef.	Z-value	Coef.	Z-value
CONS.	8.808	1.66 *	7.860	2.98 ***	-13.911	-6.89 ***	-6.637	-4.48 ***
OE_2	-0.107	-0.64	-0.031	-0.37	-0.021	-0.21	0.031	0.42
OE_3	-0.376	-1.56	-0.318	-2.65 ***				
OE_N	0.019	1.76 *	0.012	2.28 **	-0.0002	-0.03	-0.002	-0.47
LNT_CDE	-0.325	-3.19 ***	0.003	0.05	0.206	1.85 *	0.142	1.74 *
C_INCOM	-0.013	-3.73 ***	-0.003	-2.01 **	-0.020	-4.76 ***	-0.023	-7.26 ***
LOAN_TA	1.152	1.72 *	-0.137	-0.41	0.972	1.38	1.557	3.02 ***
NIE_TAS	0.767	13.53 ***	0.002	0.08	0.962	8.06 ***	-0.007	-0.08
NII_TAS	-0.734	-13.30 ***	-0.004	-0.16	-0.760	-4.96 ***	0.132	1.17
EQASS	0.125	4.18 ***	0.143	9.65 ***	0.007	0.63	0.008	1.05
LOA_CD	-0.003	-1.69 *	0.0003	0.44	-0.456	-0.67	-0.630	-1.26
PRO_EQ	3.371	12.35 ***	3.661	26.96 ***	0.890	3.30 ***	0.800	4.04 ***
LNGDP	-0.611	-1.32	-0.703	-3.05 ***	1.125	5.81 ***	0.544	3.83 ***
INFLA	-0.041	-1.55	-0.023	-1.77 *	0.019	2.32 **	0.012	2.01 **
TRAD	0.002	2.15 **	0.003	6.06 ***	-0.001	-2.50 **	0.0002	0.67
N	152		152		145		145	
LR chi <sup>2</sup>	428.46		4412.61		307.15		627.67	
P-value	0.0000		0.0000		0.0000		0.0000	
Overall-R <sup>2</sup>	0.7700		0.9718		0.7010		0.8273	

Note:1. \*\*\*, \*\*, and \* indicate significance at 1%, 5%, and 10%, respectively.

2. Variable definition refers to Appendices.

국은행이나 중국은행 모두 OE\_N 변수가 위험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추가적인 증거를 찾지 못하였다. 따라서 분석결과를 표로 제공하지 않았다.

먼저 <Table 7>에서 한국은행의 경우, 먼저 순이자마진율(NIM)을 종속변수로 사용한 모형 (1)의 경우, OE\_2와 OE\_3의 계수는 모두 유의하지 않았으나, OE\_N 계수는 0.019 (t-value=1.76\*)으로 진출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순이자마진율(NIM)이 호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총자산이익률(ROA)을 종속변수로 사용한 모형 (2)의 경우는 OE\_3의 회귀계수는 -0.318 (t-value=-2.65\*\*\*)이지만, OE\_N 계수는 0.012 (t-value=2.28\*\*)로 진출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총자산이익률(ROA) 역시 호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직 한국진출의 현지화 정도가 낮은 중국은행의 경우는 유의한 결과를 찾지 못하였다.

다음은 <Table 8>의 결과로 한국은행의 경우, 종업원 1인당 고객예수금 비율(LNCDE)을 사용하는 모형에서 OE\_2의 회귀계수는 -0.409(t-value=-2.25\*)이고 OE\_3의 회귀계수는 -0.591(t-value=-2.35\*)이지만, OE\_N 회귀계수는 0.018 (t-value=1.69\*)로 진출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종업원 1인당 고객예수금 비율(LNCDE)이 약간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종업원 1인당 대출금 비율(LNGLE)을 사용하는 모형의 경우, OE\_2 변수와 OE\_3 변수는 유의하지 않지만, OE\_N 회귀계수는 0.014 (t-value=2.49\*\*)로 진출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종업원 1인당 대출금 비율(LNGLE)이 크게 호전되고 있다. 나아가, 중국은행의 경우도 역시 종업원 1인당 고객예수금 비율(LNCEDE)의 OE\_N 회귀계수가 0.013 (t-value=3.12\*\*\*)이고 종업원 1인당 대출금 비율(LNGLE)의 OE\_N 회귀계수도 0.013 (t-value=3.26\*\*\*)으

**Table 8.** Additional Regression Results on Efficiency by Country

	Korean Banks				Chinese Banks			
	(1) LNCDE		(2) LNGLE		(3) LNCDE		(4) LNGLE	
	Coef.	Z-value	Coef.	Z-value	Coef.	Z-value	Coef.	Z-value
cons.	-20.411	-3.57***	-20.974	-7.32***	-2.852	-2.21**	-3.886	-3.03***
OE_2	-0.409	-2.25**	0.014	0.15	-0.068	-1.15	-0.065	-1.11
OE_3	-0.591	-2.35**	-0.117	-0.93				
OE_N	0.018	1.69*	0.014	2.49**	0.013	3.12***	0.013	3.26***
LNT_CDE	0.612	5.67***	0.207	3.82***	-0.947	-14.05***	-0.973	-14.54***
C_INCOM	-0.004	-1.20	-0.008	-4.67***	-0.021	-7.22***	-0.022	-7.41***
LOAN_TA	-0.160	-0.23	0.510	1.49	3.195	7.61***	3.277	7.86***
NIE_TAS	-0.071	-1.23	-0.203	-7.04***	-0.068	-0.95	-0.100	-1.41
NII_TAS	0.060	1.07	0.157	5.57***	-0.006	-0.07	0.023	0.26
EQASS	-0.020	-0.68	-0.044	-2.93***	0.038	5.92***	0.038	5.97***
LOA_CD	-0.027	-16.32***	0.001	1.06	-1.527	-3.77***	-0.106	-0.26
PRO_EQ	-0.337	-1.22	-1.034	-7.48***	0.005	0.03	-0.022	-0.13
LNGDP	1.704	3.40***	1.888	7.50***	1.528	12.88***	1.521	12.91***
INFLA	0.030	1.06	0.025	1.80*	-0.002	-0.44	-0.002	-0.42
TRAD	-0.002	-2.24**	-0.000	-0.38	0.001	1.98**	0.001	1.90*
N	152		152		145		145	
LR chi <sup>2</sup>	2549.67		11125.52		1518.38		1852.59	
P-value	0.0000		0.0000		0.0000		0.0000	
Overall-R <sup>2</sup>	0.9529		0.8993		0.9251		0.9377	

Note:1. \*\*\*, \*\*, and \* indicate significance at 1%, 5%, and 10%, respectively.

2. Variable definition refers to Appendices.

로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종업원 1인당 고객예수금 비율(LNCEDE)과 종업원 1인당 대출금비율(LNGLE)이 현저히 호전되고 있다.

마지막 추가분석으로 관련 데이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한국은행만을 대상으로 해외 진출 형태가 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한 번 임의효과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변수는 앞선 연구와 유사하게 한국은행들의 모든 국외 지점수(OE\_B)와 모든 현지법인수(OE\_S)이며 관련 데이터는 금융감독원이 제공하는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서 추출할 수 있었다. <Table 6>에서 사용한 연구 모형에 OE\_2와 OE\_3 대신 OE\_B와 OE\_S를 대입하여 실증분석한 결과, 종속변수로 총자산이익률(ROA)을 사용한 모형에서 OE\_B 계수가 0.012 (t-value=2.42\*\*)로 양(+)의 유의성을 보여주었고, 종업원 1인당 대출금 비율(LNGLE)을 사용한 모형에서 OE\_B 계수가 0.015 (t-value=3.24\*\*\*)로 강한 양(+)의 유의성을 보

여주었다. 그러나 이번 분석에서도 위험성 실증결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 V. 결론

본 연구는 중국 국유상업은행과 주식제 상업은행, 한국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을 포함한 24개 주요 은행을 대상으로 2000년부터 2014년까지의 한국은행과 중국은행의 상호진출이 수익성, 위험성과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했다. 또한 한국은행과 중국은행을 국가별로 비교해 국가별 차이를 파악하고 유사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한국은행과 중국은행의 상호진출 효과에 대한 실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표본 은행의 현지법인 진출은 은행의 수익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실증적으로는 수익성을 다소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표본 은행의 현지지점 진출과 현지법인

진출은 모두 위험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실증적으로는 대손충당금 비율을 다소 증가시키거나 무수익여신비율은 크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표본 은행의 현지 지점진출 여부와 현지법인 진출 여부는 은행의 효율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실증적으로는 종업원1인당 고객예수금비율이 다소 감소하고 종업원1인당 대출금비율은 매우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아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상호진출로 인한 수익성이나 효율성은 호전되며 이러한 현상은 중국은행 보다는 한국은행에서 더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상호진출로 인한 위험성이 완화된다는 증거는 찾지 못하였다.

종합적으로 보면 한국은행과 중국은행의 상호진출 정도는 여전히 초기단계로 수익성이나 위험성, 그리고 효율성이라는 관점에서 괄목할 만한 결과를 낳지 못하였으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수익성이나 효율성이 다소 호전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한국은행의 경우, 중국은행에 비해 다소 나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실증결과는 양국 은행산업의 현지화 정도에 따른 차이로 추론된다.

## References

- Aliber, R. Z. (1984), "International Banking: a Survey", *Journal of Money, Credit and Banking*, 16(4), 661-678.
- Berger, A. N., R. DeYoung, H. Genay and G. F. Udell (2000), "Globalization of financial institutions: Evidence from cross-border banking performance", *Brookings-Wharton papers on financial services*, 2000(1), 23-120.
- Berger, A. N., I. Hasan and M. Zhou (2010), "The Effects of Focus versus Diversification on Bank Performance: Evidence from Chinese Banks", *Journal of Banking & Finance*, 34(7), 1417-1435.
- Berger, A. N., S. El Ghouli, O. Guedhami, and R. A. Roman (2016), "Internationalization and Bank Risk." *Management Science*, 63(7), 2283-2301.
- Boot, A. W. (1999), "European Lessons on Consolidation in Banking", *Journal of Banking & Finance*, 23(2), 609-613.
- Brealey, R. A., and E. C. Kaplanis (1996), "The Determination of Foreign Banking Location", *Journal of International Money and Finance*, 15(4), 577-597.
- Brighi, P., and V. Venturelli (2014), "How do Income Diversification, Firm size and capital Ratio Affect Performance? Evidence for Bank Holding Companies", *Applied Financial Economics*, 24(21), 1375-1392.
- Buch, C. M., and G. DeLong (2004), "Cross-border Bank Mergers: What Lures the Rare Animal?", *Journal of Banking & Finance*, 28(9), 2077-2102.
- Buch, C. M. (2003), "Information or Regulation: What Drives the International Activities of Commercial Banks?", *Journal of Money, Credit and Banking*, 35(6), 851-869.
- Byun, Hae-Young (2017), "Determinants of Profitability, Risk, and Efficiency for Korean and Chinese Banks",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 Commerce*, 13(2), 65-85.
- Byun, Hyun-Soo and Jung-Hee Park (2009), "An Empirical Study on the Deter-

- minants of Overseas Expansion of Korean Banks",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24(3), 287-319.
- Cerutti, E., G. Dell'Ariccia and M. S. M. Peria (2007), "How Banks Go Abroad: Branches or Subsidiaries?", *Journal of Banking & Finance*, 31(6), 1669-1692.
- Focarelli, D., and A. F. Pozzolo (2005), "Where Do Banks Expand Abroad? An Empirical Analysis", *The Journal of Business* 78.6 : 2435-2464.
- Goetz, M. R., L. Laeven and R. Levine (2013), "Identifying the Valuation Effects and Agency costs of Corporate Diversification: Evidence from the Geographic Diversification of US Banks", *Review of Financial Studies*, 26(7), 1787-1823.
- Goetz, M., L. Laeven and R. Levine (2014), "Does the Geographic Expansion of Bank Assets Reduce Risk?", (No. w20758),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Goldberg, L. G., and A. Saunders (1981), "The Determinants of Foreign Banking Activity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Banking & Finance*, 5(1), 17-32.
- Goldberg, L. G., and D. Johnson (1990), "The Determinants of US Banking Activity Abroad", *Journal of International Money and Finance*, 9(2), 123-137.
- Gulamhussen, M. A., C. Pinheiro and A. F. Pozzolo (2014), "International Diversification and Risk of Multinational Banks: Evidence from the Pre-crisis Period", *Journal of Financial Stability*, 13, 30-43.
- Gray, J. M., and H. P. Gray (1981), "The Multinational Bank: a Financial MNC?", *Journal of Banking & Finance*, 5(1), 33-63.
- Grosse, R., and L. G. Goldberg (1991), "Foreign Bank Activity in the United States: An Analysis by Country of Origin", *Journal of Banking & Finance*, 15(6), 1093-1112.
- Hong, Chung-Hyo and Bo-Hyeon Koh (2010), "An Empirical Study on Determinants of Banks' Performance", *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and Business*, 23(2), 889-906.
- Jee, Man-Soo (2014), "China-Korea FTA Negotiation: a Launch Pad to Strengthen Korea's Financial Industry in Global Market", *KIF Weekly Financial Brief*, 23(5), 3-9.
- Jeon, Yeon-Joo, Ri-Shu Quan and Won-Sik Sul (2015), "Determinants of Profitability for Korean and Chinese Banks before and after the Financial Crisis", *Journal of Finance & Knowledge Studies*, 13(1), 163-187.
- Jiao, Yao-Hui, Ri-Shu Quan and Won-Sik Sul (2015), "Comparison Analysis of Profitability Determinants between Local Subsidiaries Abroad of Korean and Chinese Banks", *International Business Review*, 19(3), 195-215
- Kim, Chang-Beom (2012), "Efficiency Determinants of Banking Industry and Financial Policy in Korea", *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and Business*, 25(1), 801-825.
- Kim, Hee-Chang (2012), "An Analysis of Efficiency and Its Determinants of Korean Banks : By Employing Net-

- work DEA and Censored Tobit Model", *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and Business*, 25(1), 365-386.
- Lee, Byoung-Tae (2013), "A study on the analysi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its determinants in financial industry : Focused on the case of Korea exchange bank", (Doctoral Dissertation), Busan: Dong-A University, 29-31.
- Lee, Myung-Chul and Ju-Cheul Park (2011), "The Effect of Financial Characteristics on the Profitability of General Banks in Korea", *Tax Accounting Research*, 30(-), 69-84.
- Lee, Nae-Joon, Jung-Seok Choi and Bo Wang (2015), "A study on Competitive Reinforcement Strategies of Korean Banks' Entry into the Chinese Financial Market", *Korean Review of Crisis & Emergency Management*, 11(12), 157-180.
- Liu, Si-Tong (2017), "A Study on the Strategy of Korean Bank to Advance into Chinese Financial Market", (Master's Thesis), Seoul: Soongsil University, 1-97.
- Pan, Qi-Xin (2015), "The Effect of the Bilateral Expansion of Chinese and Korean Banks on Profitability, Risk and Efficiency", (Master's Thesis), Chuncheon: Kangwon National University, 1-63.
- Park, Dong-Chang (2011) "Globalization of Korean banks : a strategy and model", (Doctoral Dissertation), Seoul: the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19-21.
- Park, Hae-Sik (2013), "Korean Banks' Tasks to Expand Business in Overseas Markets", *KIF Weekly Financial Brief*, 22(50), 7-13.
- Park, Jung-Soo, Jeong Ho Suh and Bo-Kyung Park (2013), "The Effect of Loan Expansion on Bank Profitability and Risk: Evidence from Bankscope Database", *Kukje Kyungje Yonju*, 19(1), 51-73.
- Su, Shuai (2010),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determinants of China's Commercial Banks Profitability: Comparative the State-owned commercial banks and the Joint Stock Commercial Banks in two periods", *The Journal of Korean-Chinese Economics & Management*, 9(1), 123-143.
- Yannopoulos, G. N. (1983), "The Growth of Transnational Banking", *The Growth of International Business*, 236-257.
- Yang, Jong-Sik (2011), "A Study on the Globalization Plan of Korean Banks", (Master's Thesis), Seoul: Sajong University, 29-31.
- Yamori, N. (1998), "A Note on the Location Choice of Multinational Banks: The Case of Japanese Financial Institutions", *Journal of Banking & Finance*, 22(1), 109-120.
- Zhu, Hui-Qin and Ming-Ji Li (2012), "International Economics : A Study of The Influential Factors of Efficiency in Korean and Chinese Banks", *International Area Studies Review*, 16(3), 99-118.
- Kim, Kyung-Jin (2016, May 24), "Banks Chase New Mobile Culture in China", *Korea JoongAng Daily*, Available from <http://koreajoongangdaily.joins.com/news/article/ar>

ticle.aspx?aid=3019102(accessed May 31, 2016)

Kim, Ji-Eun (2016, May 27), "Korean Banks Need Oversea Expansion for Profit", NEWSIS, Available from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527\\_0014111831&cID=10401&pID=10400](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527_0014111831&cID=10401&pID=10400) (accessed May 31, 2016)

Yonhapnews (2016, March 28), "S. Korean Banks Plan Overseas Expansion despite Disappointing Results", Available from <http://english.yonhapnews.co.kr/search1/2603000000.html?cid=AEN20160328001700320> (accessed May 31, 2016)

## Appendices

**Table A.** Dependent Variables

Variable	Definition
NIM	= Net Interest Margin (%), proxy of profitability, based on core operating activity
ROA	= Return on Total Assets (%), proxy of profitability
LLP	= Loan Loss Provision / Net Interest Revenue(%), proxy of credit risk
NPL	= Impaired Loans / Gross Loans (%), proxy of bank loan quality
LNCDE	= The natural logarithm of (Total Customer Deposits / Employees)
LNGLE	= The natural logarithm of (Gross Loans / Employees)

**Table B.** Research Variables

Variable	Definition
OE_1	= A dummy that takes a value 1 If bank opens representative office, branches, or subsidiary in partner country, and 0 otherwise
OE_2	= A dummy that takes a value 1 If bank opens branches in partner country, and 0 otherwise
OE_3	= A dummy that takes a value 1 if the bank opens subsidiaries in partner country , and 0 otherwise
OE_N	= The number of years since bank opens representative office, branches, or susidiary in partner country
OE_B	= The number of oversea branches of Korean sample banks at end of year
OE_S	= The number of oversea subsidiaries of Korean sample banks at end of year

**Table C.** Independent Variables

Variable	Definition
LNT_CDE	= The Natural logarithm of Total Customer Deposits, proxy of bank size
C_INCOM	= Cost to Income Ratio (%), proxy of operational efficiency
LOAN_TA	= Gross Loans / Total Assets, proxy of bank liquidity
NIE_TAS	= Non-interest Expense/ Total Assets, proxy of management efficiency
NII_TAS	Non-interest income / Total Assets, proxy of bank diversification
EQASS	= Equity / Total Assets, proxy of capital strength
LOA_CD	= Gross Loans / Total Customer Deposits, proxy of liquidity based on loan deposit ratio
PRO_EQ	= Profit Before Tax / Equity, proxy of operational performance
LNGDP	= Natural logarithm of GDP of Country j in year t
INFLA	= Annual Inflation of Country j in year t
TRAD	= Stock Traded, Total Value (% of GDP), proxy of financial development
COUNTRY	= Korea=1 and China=0